



일본의 환경호르몬 논쟁

본고는 일본 Hoso Times지 98년 7월 13일, 20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편집자주-

‘보도피해’ 확대에 중시부 “환경호르몬” 보도 중지

“환경호르몬”(내분비교란화학물질) 문제에 대한 매스컴의 편향보도에 양식있는 사람들의 노여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고의로 센세이션하게 보도하는 일본의 매스컴은 사건이나 사회문제를 보도할 경우 텔레비전에서는 그 영상에 BGM을 이용, 공포감을 부채질한다.

주간지에서도 차내광고를 통해 실제의 본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과장된 표제가 눈에 띈다. 이러한 매스컴의 수법이 다이옥신 문제나 “환경호르몬”의 문제에도 이용됐다. 그것은 시청자나 독자의 히스테리한 반응을 기대하는 보도수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無實(무죄)의 사람을 범죄자라고 판단해 보도하는 것이다(그것도 법이 판단하기 전에). 일본 내에서의 이러한 보도피해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환경호르몬”의 문제에서도 일반시민을 끌어들이며 매스컴은 센세이션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환경호르몬”에 의해 습지나 하천에서 난소·정소, 생식기에 이상이 있는 어류가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기형어류의 발생원인인 “환경호르몬”이 웬지 컵면에 사용되고 있는 발포스티

렌용기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환경호르몬” 문제로 기형어류와 발포스티렌 용기를 왜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보도라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본래의 저널리즘의 본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환경호르몬” 작용에 있어서 매스컴은 발포스티렌용기를 ‘나쁘다’고 보도해 버린 것이다. 사법에 있어서도 ‘의심하는 것은 벌주지 않음’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매스컴은 의심스럽다고 하는 근거없는 단계에서 발포스티렌용기를 ‘나쁘다’고 해버렸다. 결과는 어떻겠는가. 네덜란드의 중립적인 종합수탁시험연구기관인 TNO는 발포스티렌에는 “환경호르몬” 작용은 없다. 결국 ‘나쁘지 않다’라는 판정을 내렸다. 또 日清식품중앙연구소의 시험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런 발포스티렌의 ‘나쁘지 않다’는 판정을 후생성도 인식하고 있다. 매스컴이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발포스티렌을 ‘나쁘다’고 한 보도로 폴리스티렌 원료·시트제조업자로부터 발포스티렌 용기제조업·판매사, 또 컵면업계는 상당한 경영적 피해와 금전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이것은 실로 '언론피해'이며 업계는 마스크에 그 이상의 사죄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본지 '특별취재반'에서는 이 이상 '보도피해'가 넓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발포스티렌용기와 "환경호르몬" 문제를 일단락 짓기로 했다.

“의혹”의 전제조건 무너지다 제3기관의 시험결과로 판명

정말 스티렌모노머, 스티렌다이머, 스티렌트리머에 환경호르몬 작용은 있는 것인가. 항간의 환경호르몬 논의는 이들 “의혹” 물질의 용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그 의론의 전제가 되는 근본문제의 검증이 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는 중립적인 제3기관의 시험결과가 공표되고 있다.

시험을 한 것은 네덜란드의회에 의해 설립된 종합수탁시험연구기관 'TNO'와 日淸식품중앙연구소의 2기관, TNO에는 일본스티렌공업회가 日淸식품중앙연구소에는 일본즉석식품공업협회가 각각 검증을 의뢰했다.

TNO는 스티렌다이머와 스티렌트리머를 주성분으로 하는 폴리스티렌의 에탄올추출물을 이용해 실험용 쥐의 자궁중량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쥐를 10마리씩 7개의 무리로 나눠 각각에 각종 시료를 투여해 각 무리 쥐의 자

궁중량을 측정해 비교했다.

이 시험 결과, 폴리스티렌의 에탄올 추출물에는 각 무리의 자궁중량의 비교로 유의차가 없는 것이 확인돼 환경호르몬 작용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日淸식품중앙연구소는 '스티렌다이머, 스티렌트리머에 관한 생물학적 평가'를 테마로 '여성호르몬 수용체 결합시험' '남성호르몬 수용체 결합시험' '유암세포 MCF-7 증식시험' '쥐 자궁비대시험'의 4개의 시험을 실시했다.

여성호르몬 수용체결합시험과 남성호르몬 수용체결합시험의 결과에서는 피험물질이 여성화 작용이나 남성화작용을 일으키는 요인물질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었다.

또 유암세포 MCF-7 증식시험과 쥐자궁비대 시험 결과에서도 피시험물질에 환경호르몬작용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스티렌모노머, 스티렌다이머, 스티렌트리머가 환경호르몬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마스크에 의연한 태도를 소비자에게 정보전달 노력도 필요

이상 본 바와 같이 컵면용기에서 용출되는 스티렌모노머, 트리머, 다이머에 환경호르몬작용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고 이 문제는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고 해도 좋다.

그런데 후생성의 검토회가 PS에 환경호르몬 작용이 없다는 견해를 나타냄에 따라 널리 일

반에게 알려진 一般紙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검토회가 열린 다음날 아침의 NHK의 뉴스에서는 후생성이 환경호르몬에 관해 연구를 한 것이 보도됐을 뿐 이러한 후생성의 견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에 실시한 국제심포지엄에 관해서도 毎日新聞에서는 '컵면용기에서 환경호르몬작용이 용출됐다' 라고만 보도하고 식물에도 호르몬작용

이 있다고 보고된 것에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보도가 명확히 편향됐다고 할 수 있다. 매스컴은 부분적이 아닌 환경호르몬의 전체 모습을 더욱 상세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업계도 이렇게 깃곳계 소비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매스컴에 의연한 태도로 바라보는 한편 모든 기회를 이용해 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호르몬작용 PS '나쁘지 않다' 추리소설의 발간이 발단

환경청은 작년 3월에 환경호르몬에 관한 연구반을 설치했지만 이 때는 "환경호르몬"이라는 단어가 일반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97년 9월에 과학적 추리소설 "빼앗긴 우리들의 미래"가 출간됨에 따라 주목받기 시작해 11월의 NHK스페셜이나 그 후의 '주간현대'에 의해 컵면용기에 관한 보도가 게재되고 毎日新聞에서도 컵면에 사용되고 있는 폴리스티렌(PS)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스티렌다이머나 트리머가 용출된다'고 보도되고, 텔레비전에서도 연이어 "환경호르몬"을 문제삼게 되었다.

3월에는 TBS의 '新선데이모닝'에서 문제삼고 4월에 들어 신문을 중심으로 집중 보도됐다.

26일에는 테레비아사히의 '선데이프로젝트'는 그 후 정정방송을 했지만 이미 때가 늦어 컵면의 매상은 5월 전년대비 15.8% 감소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일본즉석식품공업협회는 반론으로서 5월15일~19일에 걸쳐 '컵면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의견광고를 내보냈다.

한편 텔레비전의 보도 등에서 캔통조림에서 비스페놀A가 용출됐다고 보도되는 등 널리 포장재를 대상으로 주의하는 것 같은 보도가 나오고 5월에는 생활클럽연합회가 통산성과 일본제관협회에 환경호르몬 대책의 요망서를 제출, 환경호르몬 대응으로 포장재를 변경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것에 대해 동양제관 등 제관메이커 각사는 캔의 내측에 PET필름을 라미네이트하는 등의 대책을 밝혔다.

6월에는 환경호르몬학회가 발족, 시민단체의 환경호르몬전국시민단체테이블이 설립된 외에 전국의 여성번호사 155명이 다이옥신·환경호르몬대책국민회의의 결성을 추진했다. 또 29~30일에 걸쳐 東京의 澁谷區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환경호르몬문제에 관한 보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환경청은 5월에 '환경호르몬 전략계획 SPEED 98'을 발표, 후생성에서는 금년도의 보정예산으로 환경호르몬의 연구비로서 10억엔을 확보하는 등 각 省廳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관련 있는 9省廳의 과장급의 검토회를 만들게 됐다.



PS에 환경호르몬작용 없다

후생성의 내분비교란화학물질(환경호르몬)의 건강영향에 관한 검토회에서 폴리스티렌(PS)에 환경호르몬작용이 없는 것을 세심스럽게 확인했다. 7월1일에 열린 회합에서 日淸식품중앙연구

소나 일본스티렌공업회가 네덜란드의 중립적인 시험기관 'TNO'에 의뢰한 폴리스티렌(PS)의 환경호르몬작용 시험결과를 소개하고 검토해 에스토로겐성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후생성검토회가 재확인

검토회에서는 日淸식품중앙연구소가 발표한 '스티렌의 합성 및 생물학적 평가'와 일본스티렌공업회가 발표한 'PS의 에스토로겐성 시험결과에 관해서'의 보고가 나왔다.

日淸식품의 조사에서는 스티렌모노머, 다이머, 트리머에는 에스토로겐(여성호르몬)과 안드로젠(남성호르몬)의 레셉터(수용체)에 결합되지 않는 것을 밝혀냈다. 또 사람의 유암세포의 증식시험, 동물시험에서도 호르몬 같은 작용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일본스티렌공업회가 낸 데이터에서도 스티렌다이머, 트리머를 주성분으로 하는 PS의 에탄올추출물에는 에스토로겐성이 없는 것이 밝혀졌다. 동공업회의 데이터는 네덜란드의회에 의해

설립된 중립의 종합수탁시험연구기관 'TNO'에 의뢰했던 시험의 결과로 신뢰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것으로 검토회의 위원인 井口泰泉 横浜시립대학 교수도 '이것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연구결과를 인정했다.

동 검토회에서는 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의 河村葉子식품첨가물부 제3실장이 낸 PS용기입의 즉석면에서 스티렌다이머, 트리머가 식품에 이행했다는 검토결과나 환경호르몬 전국시민단체 데이블이 발표한 '역시 컵면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됐다'는 보고도 제출했다. 그러나 금회 스티렌모노머, 트리머, 다이머에 환경호르몬작용이 없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이들 보고의 전체가 무너지게 됐다. ☐

包裝人の 날 宣布

包裝材生産, 研究, 加工, 管理 및 기타 包裝産業 關聯 分野에 従事하고 있는 모든 包裝人들의 共感帶를 형성, 안으로는 公正去來秩序 確立의 品質 및 技術開發을 통한 先進化된 包裝産業을 創達하고 밖으로는 包裝材 品質, 世界 속에 韓國 環境, 福利의 世界化를 追求, 世界 속에 韓國 包裝産業의 위치를 定立하여 尙차 後孫들에게 健全한 文化를 繼承 시키기 爲해 毎年 2월 25日을 '包裝人의 날'로 宣布합니다.

1998年 2月 25日

(社)韓國包裝協會

(사)한국포장업회는 매년 2월 25일을 포장인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포장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위 선포문을 게재합니다.